www.GongPlant.co.kr
시원하게! 깨끗하게! 믿도록! 믿게!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3호선 불광역 1번 출구 앞

佛教新聞

bulgyo.com

불교는 …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라지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730-4488

1960년 1월 2일 창간 주간회 발행

불기 2556년 6월 13일 (2012년 / 단기 4345년 불력 4월24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823호

전근대적 관행과 정서 청산한다

■ 총무원장 자승스님 '제1차 종단 쇄신계획' 발표

사람에선의제정, 제정 및 외부 위계감사 도입이조, 종단의 재원이 한 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올해 직영사찰을 시작으로 주요 사찰의 씀씀이도 세간에 공개된다. 제가지가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도 정상정되며, 불사당 사찰도 등 중요사찰은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록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심사위원회가 권증한 스님만을 교역자 중

> "재정·인사혁신으로 전문 운영시스템 확립
>
> 재가자도 기관장 등용 직영사찰부터 적용"

무원으로 임명한다. 재가자의 산하기관장 등용도 해다된다.

▶관련기사 2~3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발표한 종단 1차 쇄신안에 골자로 조직의 근간인 재정과 인사 부문에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걸맞은 전문적 운영시스템 확립, 사부대중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 새삼만 궁극적인 의미다. 또한 선거권과 재판 권한 분권시키겠다는 원칙과 더불어 승풍실추 개혁과 대대 원단을 구제장애, 권교 교단의 생명인 도덕성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쇄신안은 조속한 종단법 개정과 행정조직도 올해 안에 현실화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세 차례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크게 스재정투명성 제고 스사부대중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스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 스승단 청정성 회복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수 있다.

방법과 절차도 세밀하게 소개했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문화재 구역임정도 사찰 행정단지방공제도 시행,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심의기구 개상), 인사심의위원회 설치, 자기 전문분야를 양성을 위한 장학 명칭학교 설치(2013년), 직영 및 직할교구 공동(2012년) 및 교구본사 특별분담금 사찰, 문화재구역임정도 사찰(2013년)의 재정 공개 등 사안별로 손에 잡히는 로드맵이 담겼다.

쇄신의 방향과 당위성도 명시했다. 전근대적 관행과 정서의 청산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정적 요청의 수용으로 강탄할 수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사찰과 종단 운영과정에서 병어진 각종 부작용과 분규, 그리고 갈등의 본질은 사찰과 종단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밝고에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찰운영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곧 쇄신안은 "종단 운영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시대적인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발심의 이유는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이다.

장영섭 기자 tae@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신재호 기자 sir50hd@bulgyo.com

1차 쇄신계획 골격

Ⅰ. 사부대중 공의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
1. 법·제도 통해 사찰재정 투명성 강화
2. 사찰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3.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인사순환
4. 사찰 재정공개 시행
5. 사부대중 공동체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6. 국고보조금 사찰 및 관리감독 강화

Ⅱ. 신중공의 복원과 공명선거 실현
1. 신중공의 복원·선거공명제 실시

Ⅲ. 승단 청정성 회복
1. 원규제정과 시행을 통해 청정승단 구현
2. 승풍실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3. 승풍복원을 위한 기구 설치

"1차 쇄신계획 지지" 종단협·조계사신도회

조계종이 1차 쇄신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불교원인협의회와 서울조계사신도회가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등 26개 원원 종단은 지난 7일 발표된 '불자나로 국민들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조계종이 1차 쇄신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부디 결실을 맺길 기원하며 깊은 공감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이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지 못한 참회는 크게 구정고, 원하든 승가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면서 "깨인지성 없은 무분별적인 혹은 한국불교를 환원고 나아가 사찰학으로는 불신을 조장하는 소모적 갱위로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사 신도회(회장 지승동)는 "스승단 청정성 회복 스사부대중공동체 확립 스종단운영시스템 개선 스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분류되어 작성된 쇄신안에서 계획되지를 생생하게 이해다"고 "종단의 자성과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종 · 배불 갱위들이 계속해서 선명된다면 목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박인혁 임태규 기자

다양한 인문강좌·현장실습 신설

교육원, 하반기 승가 연수교육…13개 과목 첫 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위한 종단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5일 하반기 연수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하반기에 개설된 과목은 선리(禪理), 상장(三藏), 인문사회분야, 사찰운영, 전법법상과정 등 5개 과정 25개 강좌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3개 강좌가 올해 처음 선보인 것들이다.

특히 선과 관련한 4개 강좌 모두 신설돼 눈길을 끈다. 원로의원 고우스님이 강사로 나서 후학들을 위해 '벽암법문'을 강설하며, 학담스님이 '정혜사그룹 임제기풍'에 대해 강의한다. 또 월호스님의 '선문단련설' 현봉스님의 '진심직설' 등의 강좌가 9월과 10월에 잇따라 선뵌다.

당당한 강의실을 벗어나 탁 트인 현장에서 불교문화유산을 공부하는 '경주남산불적답사' 와 '전통건축의 이해와 실습' 강좌도 준비돼 있다. '경주남산불적답사' 는 경주에서 2번당겉인 마무리되어 전문학예사의 도움을 받아 남산을 둘러보고, 불교문화유산을 활용해 전법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통건축의 이해와 실습' 은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장 정양스님과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불교문화경건축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 보존, 관리방법을 지도한다.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인문사회분야강좌도 주목된다. 조선일보 '조용한 살롱' 으로 잘 알려진 칼럼니스트 조용헌 씨가 '동양문명과의 이해' 에 대해 강의하며, 표상용 성균관대연구소장이 '수행과 전강' 에 대해 소개한다. 도 이희봉 중앙대 교수의 '현대건축 이야기'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서양사상의 흐름' 등도 신설됐다.

교육원 연수국장 전광스님은 "하반기에는 다양한 인문사회분야 강좌와 함께 종주남산답사 및 전통불교전축에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며 "많은 스님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esmaltz@bulgyo.com

쇄신안 입법 '뒷받침' 190회 임시종회 21일부터 5일간

종단 쇄신안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5일 수후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 집회 공고"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7일 발표한 종단 쇄신안 등 최근 종단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헌 제·개정 건을 다루며 적극적인 종책활동을 이뤄져질 전망이다. 이번은 14일, 종책집의는 15일까지 각각 접수를 마감한다.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이번 임시종회에서 종단 쇄신안의 원만한 회합을 통고, 사부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들이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5월31일 대종공사를 열고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쇄신안의 원만한 회합을 위해 종단 대처구조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고령자·장애인 출가 허용해야"

14일 공청회 앞두고 보광스님, 논문 발표

출가자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도 출가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은 조계종 중앙교육원 출위법회(위원장 자승스님)가 오는 1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에서 발표할 논문을 미리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출가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을 주제로 기조강제를 맡은 보광스님은 "고령과 시대를 맞아 50세 이하만 출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출가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한원위원회를 설치해 고령자들이 출가해 수행하거나 특수분야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또 "장애인에게도 출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자랑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저촉되고 편등수행공동체인 출가집단에서 차별은 부처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 며 "출가자로서 업무나 수행을 라는데 핵심만 지장이 없다면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산 시대에 맞는 출가자 양성 정책과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젊은 출가자들이 대개 득도할 수 있도록 군법사를 통한 출가자 양성 및 단기출가체험담교 운영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소년 출가를 유도하기 위해 유아·초, 동자승 단기출가제도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제8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이 '출가자 활성화 프로그램 제안과 방향' 에 대해 발표해에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스님이 '특수출가를 활용한 분야별 활성화 방안' 에 대해 고찰한다.

이현경 기자 esmaltz@bulgyo.com